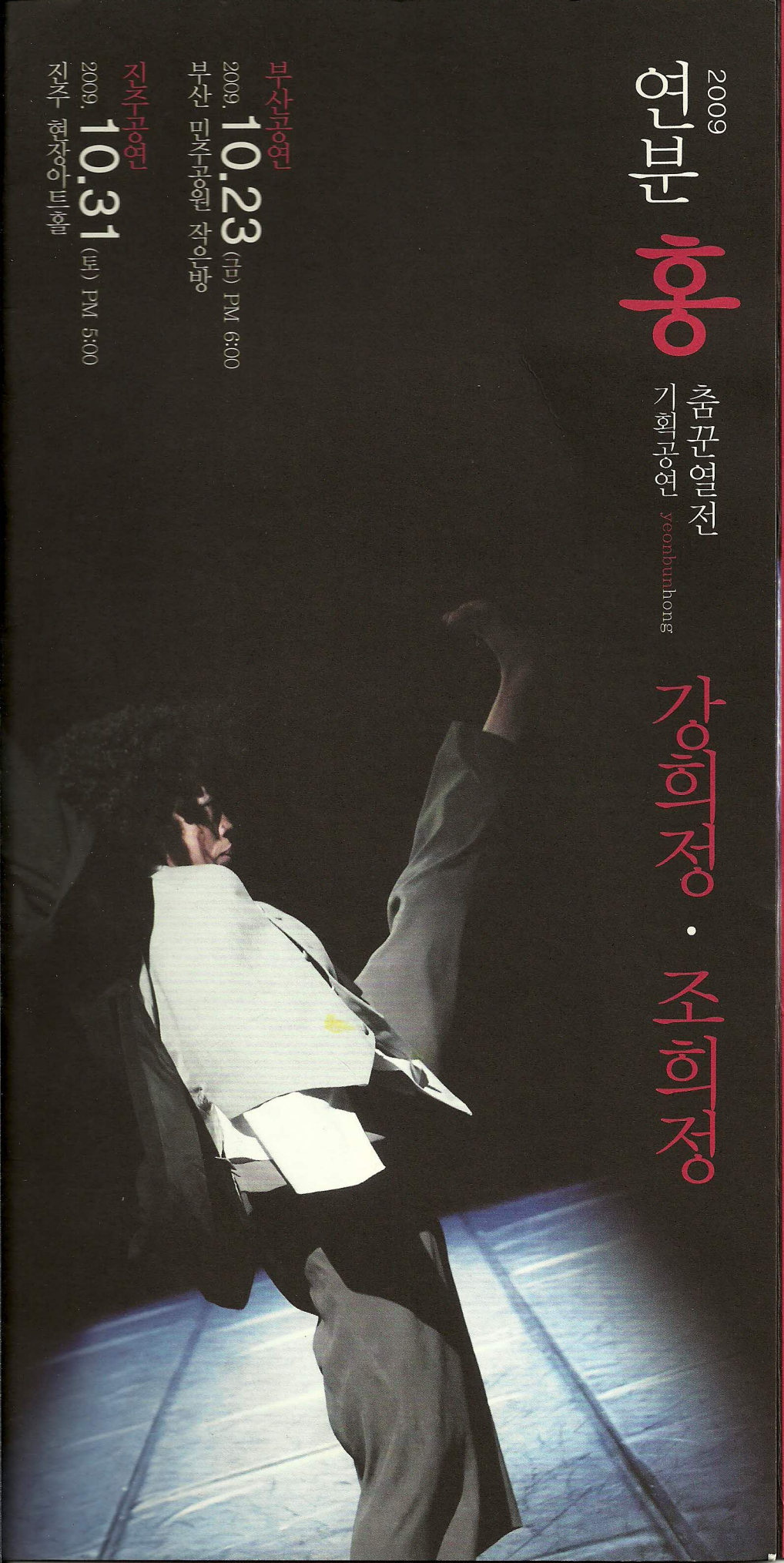
2009

연분홍

춤꾼열전

기획공연 yeonbunhong

강희정 · 조희정



부산공연

2009. 10.23 (금) PM 6:00

부산 민주공원 작은방

진주공연

2009. 10.31 (토) PM 5:00

진주 현장아트홀

조희정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수료
연분홍 상임단원
필라델피아 댄스페스티발 'Feet 2000' 출연
부산무용콩쿨 동상 수상
제6회 신인춤 젊고 푸른 춤꾼 '행복증후군' 안무
부산현대무용단 기획공연 '흔들리는 법' 안무
제20회 국제현대무용제 출연
제22회 서울무용제 출연
제21회 국제현대무용제 출연
국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동동 2030' 출연
목포우수마당극제전 '그렁그렁' 안무 및 출연

주요 안무작

'행복증후군'
'흔들리는 법'
'하이힐을 신고 산을 넘다'
'Waiting for... ' '
하늘은 파랬다 '
'그렁그렁'

강희정

경성대 무용학과 졸
일리노이 주립대학 무용과 MFA 석사 졸
현대 무용단 'Zoom' 대표 역임
예술공동체 '마르' 대표
경성대학교 초빙교수

주요 작품

I.AM.HEAR.AGAIN, 창, 비(Rain), 순수, 다섯개의 기둥,
전사, 카페 드 레인, 청춘, 맨발로 하늘을 걷다,
의자, 꼼지락거리는 구두를 벗다
가스펠, 깡통, 그리스, 자갈치,
사랑은 비를 타고, 룰라, 비언소, 빙고
아름다운 사인, 실내극, 트라우마,
실크커튼은 말한다, 비닐하우스, 쇼타임

One.
하늘은 파랬다

안무 : 조희정
출연 : 조희정

...가슴으로 마음껏 빨아들이고 싶다.

Two
그렁그렁

안무 : 조희정
출연 : 김수현, 김태경, 김현진

막연한 서글픔이 목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온몸으로 퍼져 오를때....

두 손으로 두 눈을 막고 이를 꽉 물어도
두 손 가득히 흘러 내리는 눈물....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 밖에....
그 눈물 안에 웃음이 있으니까...

서글픔이 목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조희정-

아이는 가볍게 구르고, 접고, 튀어 오르는
질량의 상상으로 '춤추는 여자' 가 되었다. -강희정-

Three
개인적 중력

안무 : 강희정　출연 : 강희정　대본 : 구현철

오래된 싸움이다. 어린 시절 그네타기에 푹 빠져 있었을 때, 아이의 싸움 상대는 중력이었다. 운동장과 저녁하늘을 마음껏 전복시키려는 발굴림에 도돌이표를 놓는 짓궂은 장난을 거는 것이다. (알고 보면 아이들의 놀이 기구는 모두 중력과의 싸움이다.) 그러나 아이는 싸움상대를 놀이의 친구로 만든다. 자유분방한 아이의 그네 타기는 끌어당기기와 밀어내기를 혼합하여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흥겨운 몸이었다. 그 아이는 가볍게 구르고, 접고, 튀어 오르는 질량의 상상으로 '춤추는 여자' 가 되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월의 원심력은 아이의 몸을 자라게 했으나 중력은 늙고 지치게 만든다. '공기를 손바닥으로 눌러서 뛰어.' 안무 연습실에 선 괴상한 유머가 떠돌았다. 몸 때문에 한계가 주어지지만(우리는 결국 몸 때문에 죽어간다) 그러나 몸이야말로 삶의 물질적 근거이자 고통이나 슬픔 또는 기쁨 등 내면을 바라보는 창이다. 불빛이 새는 창 너머를 상상을 할 때 '춤추는 여자' 의 몸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를 한다. 그때 현실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곳에서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위와 아래,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뒤섞어 그녀의 전복을 꿈꿀 수 있다. 아이의 흥겨운 몸은 '춤추는 여자' 의 익살스런 키니발이 되었다.

「나는 편도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네.
편도나무여, 나에게 신에 대해 말해다오.
그러자 편도나무는 만발했네.」 니코스 카잔차키스

싸움은 물음으로 계속된다. 딱딱한 끌어당김의 현실이 없다면
운동장 저쪽으로 달려갈 수 없었을테지.
폭발할 것 같은 내 심장의 숨소리 듣지 못했을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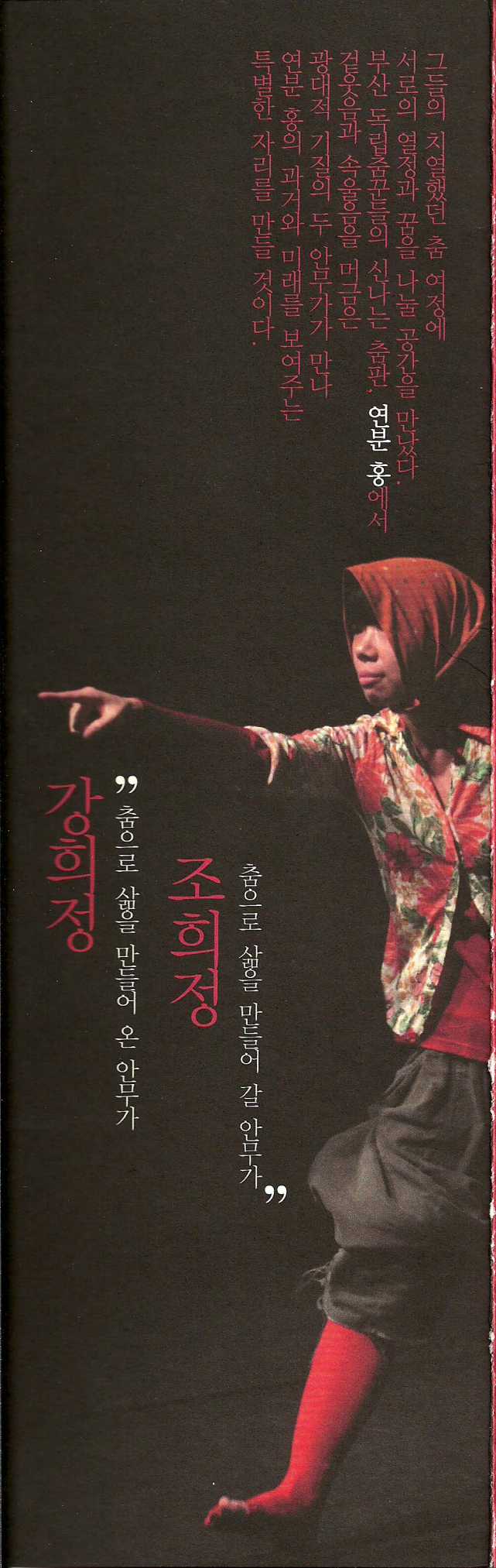
「나는 공중그네에게 이렇게 말했네.
누이여, 나에게 가벼움에 대해 말해다오.
그러자 공중그네 바람에 흔들렸네. 이러고 있으면 지구의
한복판이 흔들흔들리는 느낌. 알까? 그렇게 속삭였네」

four
로시난테의 편자

안무 : 강희정　대본 : 구현철
출연 : 문라욱, 김홍현, 김조슬, 선승일, 김영찬(부산), 김문석(진주)

일상의 오후를 산책이라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행동은 무얼까. 가벼운 운동화를 신는 일이다. 그리고 발이 편하게 끈을 조이면 된다. 거창할 것 없이 사색과 풍경을 즐기는 길 위의 시간을 느낄 수 있다. 돈키호테가 길을 떠나기 위해 로시난테의 등에 올라탔다면 로시난테에게는 가볍고 단단한 편자가 필요했다. 우리는 한참을 걷다가 멈출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선가 왔고 어디론가 가는 중이다. 모호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닌 내 삶의 방식을 묻게 된다. 길 위에 있지 않을 때 내 욕망은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나대로 살고 싶다는 유목민의 열망은 왜 나무처럼 살자는 정착민의 것으로 바뀌는가. 길 위의 유목민으로 선다는 것은 용기이고 슬픈 희망이며 나에 대한 호기심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의 말라있는 로시난테에 편자를 끼우는 일로 시작된다. 섬세하고 극적인 움직임으로 치환될 것이다.

그들의 치열했던 춤 여정에
서로의 열정과 꿈을 나눌 공간을 만났다.
부산 독립춤꾼들의 신나는 춤판, 연분 홍에서
겉웃음과 속울음을 머금은
광대적 기질의 두 안무가가 만나
연분 홍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 것이다.



"춤으로 삶을 만들어 온 안무가"
조희정
강희정
"춤으로 삶을 만들어 갈 안무가"

연분 홍

2001년 부산지역의 30대 전후반의 젊은 춤꾼들을 중심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춤을 사랑하고 춤추기를 열망하는 춤꾼들이 형식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춤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춤꾼들이 연분 · 홍의 주인인 자유로운 페스티벌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01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정기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연분 · 홍에서는 젊은 춤꾼들이 자신의 개성과 창작세계를 마음껏 드러내는 실험적인 춤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 모든 것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기회로 삼아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정서를 춤으로 구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목포, 진주 등 타 지역과의 활발한 공연 및 교류를 통해 한국 현대춤판의 새로운 무게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부산시 공연예술 집중육성단체에 선정되어 3년간 다양한 공연활동을 지원받으며 춤 창작을 위한 탈춤, 무대매커니즘 워크샵,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대상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1 6월 연분 홍 첫 번째 춤판(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2002 9월 연분 홍 두 번째 춤판(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2003 9월 민족예술대동굿
10월 연분 홍 세 번째 춤판(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2004 4월 광주 영암 왕인축제 축하공연
9월 연분 홍 네 번째 춤판(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2005 5월 전남 완도 장보고축제 개막공연
10월 연분 홍 다섯 번째 춤판 " 공소를 찾아서"(부산민주공원 소극장,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11월 북관대첩비 국중대회 축하공연 (서울 경복궁)
2006 5월 세계생명문화포럼 경기 2006 축하공연
금정산 생명축전 축하공연(부산 금정산)
9월 연분 홍 여섯 번째 춤판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실학축전 2006 축하공연(경기도 남양주 다산유적지)
민족미학연구소 탈굿 축하공연(부산 민주공원)
2007 6월 연분 홍 현대춤 공연 "시선의 재발견"(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8월 바다마당극제 축하공연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특설무대)
2008 6월 2008 연분 홍 "품다, 풀다"(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2009 7월 목포우수마당극제전 참가

연분 홍 12월 공연

"춤에서 길을 찾다"
12월 3(목), 4(금) PM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춤에서 길을 찾다" expansion ver.
12월 20(일) PM 5:00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Staff

무대감독 손재서 조명감독 이동진 사진 이장수 영상 장희철, 김동진
홍보디자인 구세은(페e퍼민티) 기획 원향미

주최 : 춤패 연분 홍 후원 : 부산광역시 공연문의 : 019-516-2201 / 010-2756-1962
본 공연은 2009 부산광역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기금을 일부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